

Paminy

2015 10월~12월 vol.11

젊은은 가고 청춘은 온다

여름 휴가사진 콘테스트

봉평, 이호석의 고향을 가다



고객님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Make

BOOKMATE



vol. 11
2015 Oct. Nov. Dec

CONTENTS

Pacom Family
PamiN

02	북페어	2015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03	공감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온다
04	팩کم소식	팩컴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08	팩컴이벤트	여름 휴가 사진 콘테스트
09	부서소개	해외영업부 창조팀
10	이모저모	이제 한 달 근무했어요
12	힐링로드	물의 도시 베네치아
14	공감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15	팩컴동호회	제2회 팩컴 탁구 동호회 대회
16	팩컴소개	팩컴의 옥상 정원을 소개 합니다!
18	팩컴소식	결혼 소식
20	쉬어가는곳	패밀리 난센스 퀴즈!
21	공감	봉평, 이효석의 고향을 가다
22	공감	안산 수암공장 구유순
23	쉬어가는곳	키워드로 보는 가을
24	찰칵소리	
26	팩컴뉴스	

* Pamily (Pacom Family) 는 팩컴코리아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한 사보입니다.

발행처 팩컴코리아 | 발행일 2015년 10월 16일 | 발행인 김경수 | 편집장 황철원 | 기자 이원성 박미선 주선영 이운정 최광목 | 교정·교열 윤지은 | 디자인 김수희 | 인쇄 팩컴AAP

2015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린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에,
황철원 본부장님과 저 이연지가 Pacom을 대표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BIBF에 참가하는 수많은 미국, 유럽 출판사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맞이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BIBF 개최 2주 전 갑작스럽게 참가가 결정되면서 도서전에 참가하는 미국, 유럽 등의 출판사에 계속해서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맨 땅에 헤딩’ 식으로 직접 부스를 찾아 다니며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행사 기간 동안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출판 관계자로서 우리의 오랜 고객사인 KLUTZ의 다양한 책 및 “Honolulu Fashion Week”, “Evolution” 등의 중국판 출판 제작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팩

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전시해둔 견본을 훔쳐가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미흡했던 탓도 있었지만, 이미 기존에 중국 현지에 인쇄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였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북페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정교한 견적 시스템을 보유한 국내 업체와 미팅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추후 우리 팩컴의 시스템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렴하고 질 좋은 홍콩의 용지 업체와 contact 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등, 나름대로 몇 가지 소중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첫 출장인 만큼 많이 설레기도 했고 큰 소득이 없어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래선 하나 하나가 이토록 어렵게 구축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른 어느 업체보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폐기 어려운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 또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삼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신뢰를 쌓아서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오신 선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업무에 적용하여 우리 팩컴이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발하는 이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지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온다.

최 속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온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읽으며 눈에 쏙 들어온 제목.

우린 흔히 젊음과 청춘을 같다고 생각한다.
'어이구 청춘이다~'라며 나이 보다 어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놀리고,
나이 들기로 인해 젊음도, 청춘도 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젊음이 시간 속에서의 한 부분이라면 청춘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
스스로 찾기만 한다면.....

지나가 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의 청춘을 새로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이 제일 젊다고 말하는데.....

늦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뭔가 나이와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우린 청춘을 느낀다.
뭐 먹고 살 일도 아닌데 왜 그리 열심히 공부를 하지? 왜 그리 일을 하지?
그 시간에 편안하게 쉬고 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삶 속에서 희열과 행복을 느끼며 청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들은 청춘을 젊음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 한 가운데 얻게 되는 청춘의 기쁨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만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청춘을 만들어 볼까나?



팩컴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팩컴이 문을 연지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째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고, 17년째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팩컴 전 직원이 군포 공장에 모였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수 사원 표창 수상을 진행했습니다. 팩컴(팩컴코리아, 팩컴AAP)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수한 직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근무 성적, 성과, 개인 역량 등이 보다 더 우수했던 직원들에게 <우수 사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팩컴코리아 우수사원 수상자

1. 창조팀 황철원 본부장
2. 창조팀 성문기 차장
3. 안산공장 구유순 과장

4. 디자인팀 김수희 대리
5. 관리부 김수민 사원
6. 안산공장 니까가와메구미 사원
7. 안산공장 이영숙 사원
8. 북메이크 김중창 사원

팩컴AAP 우수사원 수상자

1. 정비부 백형채 부장
2. PREPRESS사업부 조상용 부장
3. 인쇄사업본부 류진성 과장
4. 제본사업본부 안준 과장
5. 제본사업본부 박종천 대리
6. 제본사업본부 박선희 사원

7. 제본사업본부 이채영 사원
8. 제본사업본부 황덕영 사원
9. 물류팀 김용성 사원

또한 이번 창립기념일부터 공정 별로 기계설비를 평가하여 우수한 공정 3팀에게 <기계설비 우수공정> 상을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회, 16주년 창립기념일에 우수 공정으로 선정된 3팀을 소개합니다.

- 1위 인쇄사업본부 9호기팀
- 2위 제본사업본부 양장팀
- 3위 PREPRESS사업부 CTP팀





사장님 16주년 창립기념일 기념사

오늘은 기쁘고 설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팩컴의 16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만큼 잘 이겨내고 성장해온 것을 대견해하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희망보다는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만을 경쟁적으로 말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만들어온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과,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 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전과 희망으로 충만해야 할 젊은 세대에 게마저 이것저것 모든 것의 포기를 의미하는 “N포 세대”, “88만원세대”니 하며 자자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말들로 감정적 도발을 이끌고, 뒤에 숨어 이를 비겁하게 이용하는 허위에 찬 가짜 지식인들로 넘쳐나고, 가치나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분란을 증동질하는 일들이 새롭지 않은 요즘이지만, 저는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고는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다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팩컴 가족들에게서 감사와 희망을 발견하며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업계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고, 새로운 IT시대의 미래가 우리에게 얼마

나 불투명하고 암울한 것일지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수 차례나 오늘의 힘든 현실과 내게 가해지는 고통이 사실은 나에게 “감춰진 축복”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의 힘든 과정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16년간 팩컴의 오늘이 있기까지 혼과 열정과 청춘을 함께한 모든 우리 팩컴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것들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설렘을 줍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떤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우리의 성취에 대한 흥분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오늘 팩컴 17년 차의 첫발을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보다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 팩컴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법 과도하게 느껴질 만큼 큰 설계도를 그려놓고 시작했고, 처음 수년 동안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설계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었습니다. 모든 생각했던 목표와 꿈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은 꽤 오랫동안 한 번도 흔들려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감에 넘쳐있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실 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커지고, 풍성해지고, 멋지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나에게 그렇게 평탄한 길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한다”는 창기스칸의 금언이 가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내게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달려야 살 수 있다”는 지상명령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그것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자 생존하고, 거부하는 자 족사”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우리로 변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계란을 낳아 깨면 후라이가 되고,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씩 워진 타올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진 짧은 시간을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최근 창사기념일 이벤트로 실시한 환경설비개선결과를 점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비교적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고, 나름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타사와 비교했을 때 생산성 면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상 이익창출 면에서도 매우 뒤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냉정한 현실임

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생산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원가분석시스템, 내부역량분석 등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취약점, 개선해야 할 점과 계승발전 시켜야 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변화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품질, 효율, 서비스, 고객관계, 근무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창사 1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는 날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타율적인 나(우리)에서 자율적인 나(우리)로, 배타적인 나(우리)에서 포용적인 나(우리)로,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의 나(우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나(우리)로, 작은 울타리에서 안주하는 나(우리)에서 세계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나(우리)로, 구태의연한 나(우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배우려는 창의적인 나(우리)로, 소아를 위해 사는 나(우리)보다는 대아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우리)로 변화해 가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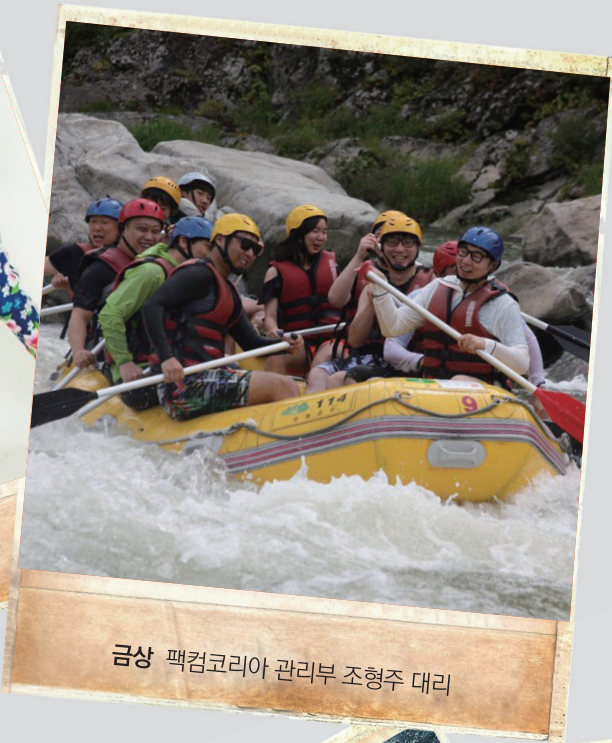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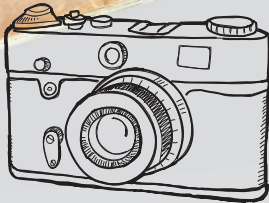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내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모든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팩컴 가족 여러분, 이제 변화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고, 집보다 행복한 직장을 합심하여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Happy Birthday to Pacom!



대상 팩컴코리아 POD 전인범 사원



금상 팩컴코리아 관리부 조형주 대리

수상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대상 : 상품권 10만원

금상 : 상품권 5만원

은상 : 상품권 3만원

동상 : 상품권 2만원

심사

팩컴 임원님들

팩컴 사보팀

PACOM 여름 휴가사진 콘테스트!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휴가는 시원하게 잘 보내셨나요?
팩컴 직원분들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을 통해
즐거웠던 휴가의 기록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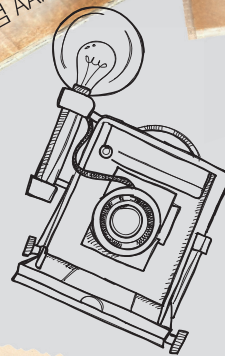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은상 팩컴 AAP 정창성 사원



은상 팩컴코리아 전산실 김민우 대리님



동상

팩컴AAP 유태중 사원님

팩컴AAP 정순이 사원님

팩컴코리아 관리부 최경현 차장님



실새 없이 몰아치지만 지치지 않는 돌격부대! 팩컴 창조팀!

2015년 초부터 유난히 바빠 움직이고 있는 부서가 있다. 바로 팩컴의 돌격부대 창조팀이다.

작년의 큰 아픔 때문인지, 올해는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밤낮을 잇고 일하는 부서 창조팀을 소개한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칼을 뽑으면 책임지는 부서의 리더 황철원 본부장은 올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2015년을 맞이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은 재치 있는 영업의 화술로 바이어에게서 “GOOD, PERFECT!”를 나오게 하고야 만다.

팀의 위, 아래를 잇는 든든한 다리 성문기 차장은 항상 모든 일을 빈틈 없이 수행해낸다. 이런 그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잘 쓴다. “반드시 출고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또한 승부욕이 강해 스포츠 면으로도, 주량 면으로도 뒤지지 않는 성문기차장이다.

중후한 체격에 맞게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민상준 과장은,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로써 역할을 다하는 '일등 아빠'라고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일등 아빠라고 해서 회사에 소홀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밤낮을 잇고 제품의 스케줄과 고객 제품의 이상 유무를 항시 체크하여, 바이어들에게 만족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현풍이가 가장 반기는 현풍이의 삼촌, 훈남 홍석준 과장은 평소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든 “로봇표장” 보유자이다. 그러나 바이어들, 특히 일본 바이어들은 홍석준 과장이 꼭 잡고 있다. 그만큼 그에게는 빈틈이 없다는 뜻이다. 현풍이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 일본 바이어들을 휘어잡는 업무 스킬 등, 이렇게 빈틈없는 홍과장에게 한가지 흠이 있다면 아직 미혼이라

는 점. 좋은 소식이 있다면 100% 빈틈 없는 홍석준 과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결혼을 하여 신혼의 향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운정 사원은, 보기와는 달리 악으로 깡으로 가득 찬 우먼 파워로 유명하다. 그녀는 비가오나 눈이 오나 출근시간이 변하지 않는 부지런한 직원이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매우 인상적이다. 그만큼 무거운 샘플을 항상 몸에 안고 다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육상선수 생활을 한 것처럼 매우 빠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어느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이운정 사원은 창조팀의 주량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이연지 사원은, 팀의 막내로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를 볼 때에는 영업 프로 우먼으로서, 신입사원답지 않게 프로페셔널 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4G LTE-A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있는 이연지 사원은, 향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매우 크다고 한다. 이 야망을 가지고 팩컴에서 능력 있는 영업사원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직원들로 알차게 차있는 창조팀은, 팩컴 영업의 선두에서 확실하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팀이다.

이원성



이제 한달 근무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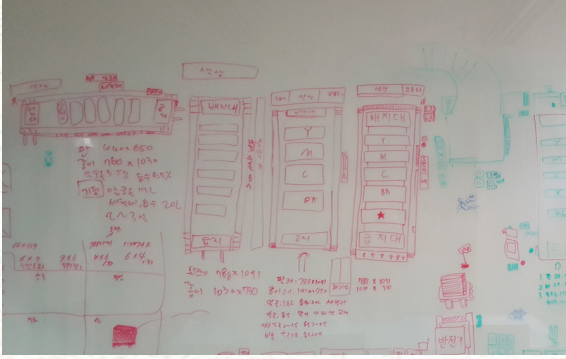
10대의 마지막을 팩컴에서 보내고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실습생 5명을 만나보았다.

“선배님들께서 모두 다 잘해주십니다. 오히려 제가 말이 없는 편이라 기장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실습생이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연다. 이제 실습기간이 1개월 지난 서울공업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실습생 5명을 만나 그 동안 겪었던 팩컴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1달 동안, 오전 2시간은 직장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직장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교육받았다고 한다. 관리본부 이원성부장이 주관한 이 교육은, 매일 층별 기계명칭과 기계 세부사항 익히기는 물론, 직원 이름들을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층을 왔다 갔다 하며 빠르게 진행된 교육 때문인지, 한 실습생은 아침마다 런닝맨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전한다.

2시간의 교육이 끝난 후, 인채부서에 실습을 하러 내려 가면 다시 과제가 주어진다. 어느 날 과제는 '배열표를



익히고 알아오기'였는데, 혼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생산관리 부서로 내려가서 문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모 차장님께서 “너희들하고 지내야 하는 기장님한테 물어봐라.”라고 하셔서, 나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분에게 가서 문의하니 “너희가 직접 해보면서 알아봐라”라고 하셨다고 한다. 처음엔 굉장히 막막했지만, 나중에는 여느 참고서나 교육보다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학교와는 다른 직장생활의 키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실습생들에게 1개월 생활을 한 느낌에 대해 물어보았다.

첫 번째, 가장 힘들었던 것?

“교육시간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점심시간 꿀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일해야 하는 것”,

두 번째,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배 직원들에게 인사 하는 것”, “각 층에 가서 기계 구조 파악한 일”, “교육실 칠판에 인쇄부서의 기계별 구조를 세세하게 그린 것”, “소화기 위치 파악하러 다닌 일”, “종이 쌓기”,

세 번째, 회사생활에 대한 느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힘들었는데 점점 배우면서 익숙해 지고 있어요”, “모두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좋은 분위기에요”, “회사생활이 막상 쉽지 않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항상 밝은 분위기라 좋아요”

마지막, 실습생 모두 통근시간이 길 텐데, 출퇴근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이 질문에는 모두 한결같이 “항상 이어폰 품고 밀린 잠을 자요” 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자 옆 친구가 한마디 더 한다. “그러다 내릴 정거장 지나서 3정거장까지 가본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이 생겨서, 자다가 눈뜨면 회사예요” 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모두가 웃으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인터뷰 내내 실습생 모두가 해맑은 눈동자를 하고, 손에는 때가 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기자는 이들을 보며 팩킹의 젊은 청춘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이때 일과 시작 종이 울리자, 마치 사전에 약속했다는 듯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인터뷰를 마쳤다.  이원성



물의 도시 베네치아

지구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베네치아는 그 이름만으로 설렘을 준다.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여서 물과 관련된 로맨틱한 별칭들이 많은 이곳, 미로와 같은 골목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뚝들은 베네치아의 다양한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더해 주고 있다.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역에 가까워 질 때쯤, 푸르른 빛을 띠고 유유히 흐르는 바다를 보든 순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라틴어로 '계속해서 오라'라는 의미를 가진 베네치아는 삼각주와 갯벌 위에 세어진 도시로 118개의 섬이 400여 개의 다리와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베네치아의 신비로운 경치와 마주하기 위해 산타루치아 역을 나

와 미로 같은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다. 물의 도시답게 자동차는 전혀 없고, 교통수단인 수상버스와 곤돌라들이 수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골목을 거닐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이 반겨주었다. 뱃사공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곤돌라를 타는 관광객, 개성이 넘치는 상점들과 노천카페에서 한가로운 차를 마시는 사람들까지 발길 닿는 모든 곳이 화보처럼 느껴졌다. 복잡한 골목들이 익숙





해질 썸, 매력적인 건축물과 낭만적인 공간 산 마르코 광장에 다다랐다. 산 마르코 광장은 ‘ㄷ’자로 둘러싸여 있어 하나의 거대한 홀처럼 보인다. 어찌나 아름다운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산 마르코 광장을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 불렀을 정도이다. 광장의 가운데에는 베네치아의 수호신인 날개 달린 사자상과 성테오도

르상이 있고 동쪽으로는 산 마르코 대성당, 두칼레 궁전이 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은 16세기경 정부청사로 건립된 것으로, 나폴레옹의 날개(알라 나폴레오니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박물관을 비롯해 오래된 카페, 살롱들이 들어서 있다. 산마르코 광장을 살짝 벗어나면 아드리 해에 정박되어 있는 곤돌라와 더불어 많은 화가와 노점상들이 푸르른 바다를 등에 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광명소에 가면 쉽사리 볼 수 있는 모습들도 이 곳 베네치아에서는 낭만적인 풍경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 날의 날씨는 먹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는데, 베네치아의 오래된 건물위로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 베네치아는 점점 아드리해 아래로 가라 앉고 있다 한다. 그래서인지 돌아오는 길, 좋은 추억과 함께 아쉬움이 짙게 드리웠다. **주선영**



독서평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친구를 기다리며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내가 매일하고 있는 걷기를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 책의 제목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몇 장의 책장을 넘겼을 때, 나는 평소에 필요에 의해 목적지가 정해진 걷기는 하고 있지만, 목적지 없이 사유하며 걷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사유하는 철학으로서의 걷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이 책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랭보, 칸트, 벤야민, 루소, 간디... 등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 과학자, 문인,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걷기를 즐겼는지 알 수 있다. 투박하고 원초적인 걷기에서부터 고독을 씻고 사유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걷기, 외세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한 걷기까지... 그렇게 그들은 걷기를 통해 사유를 즐겼고, 책을 썼고, 학문을 완성했다. 결국 이 책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걷기가 ‘철학적 행위이자 정신적 경험’임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자연 속에서 걷고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것을 권한다. 특히 혼자 걷기는 자신과 만나는 고독의 순간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어색해 스마트폰이나 MP3에 의지한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자기기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혼자 사색하면서 걷기를 권장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속한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것. 그렇게 혼자 걷는 순간에 보이고, 들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진정한 나와 대면하게하며 ‘자연속의 일부인 나’를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니 당장 하루에 몇 분이라도 집 주변을 산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날씨가 좋아, 집 주변 산책로와 등산로에 시간이 나면 가보려 했는데 이 책이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역시, 책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길까지 제시해준다.

이 책은 어렵다고만 느끼던 철학을 ‘걷기’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평소 인문학 책을 멀리하던 나도 책을 읽는 내내 흥미를 잃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어렵지 않은 인문학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박효정**

제2회 팩컴 탁구동호회 대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팩컴의 탁구대회가 열렸다. 열기로 가득했던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난 9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의왕시의 탁구장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탁구 동호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지원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였다. 아마추어 대회이긴 하지만, 이 유니폼 덕분에 단순한 회사 대회가 아닌 지역대회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9월에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팩컴 직원들은, 작년 우승자인 제본사업본부 정대성 과장을 모델로 삼아 1여 년간 꾸준히 각자의 기량을 향상시켜왔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탁구장에서 각 부서별, 조별 연습을 열성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또한 평소 월 1회씩 열린 탁구 경기 후, 황철원 본부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서로의 장단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시간 덕분에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서, 나이, 직급을 떠나 모두가 열정적으로 땀 흘리는 경기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윤영봉 대리의 발 빠른 동작, 이정근 차장의 소리 없는 강서브, 김주일(제본) 대리의 날렵함 등이 인상 깊었다. 또한 소대용(제본) 등,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월등한 실력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 챔피언들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제 2회 팩컴 탁구동호회 대회에서는 정대성(제본) 선수가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였고, 2위는 박종천(제본), 3위는 윤영봉(PREPRESS), 그리고 4위는 국종석(마케팅) 선수가 차지하였다. **이원성**

팩컴의 옥상 정원을 소개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가게 되는 팩컴의 옥상 정원. 옥상의 옛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삭막했던 페인트 바닥에서 지금의 생명력 넘치는 푸른 잔디밭으로 변하기까지 옥상 정원의 변천사를 담아 봤습니다.

팩컴 건물 옥상 중앙에는 직원 식당이 위치해 있어 팩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꼭 와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옥상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벽과 바닥에 발려 있었고, 식당 옆에는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직원들은 옥상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기 위해 우산을 쓰거나, 내리는 눈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식당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서 식당까지 나무데크로 길을 만들고, 길 위에 투명 렉산으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여유롭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강렬했던 초록색 방수 페인트를 회색 방수 페인트로 덧씌우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페인트 색을 회색으로 변경하고 보니, 옥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해지긴 했지만 조금은 삭막한 느낌이 나는 듯 했습니다.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옥상을 좀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상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음해 봄에 만나게 될 푸른 잔디와 나뭇잎이 무성한 옥상 정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봄이 오자 노릇했던 잔디에서 푸른 싹이 돌아 나고 양상했던 나뭇가지들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넘치는 푸른 생명들은 팩컴 전체에 활기와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상 정원의 푸르름이 업무로 지친 팩컴 직원들에게 위로와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어 정원의 풀들이 무성해지면 대표님과 직원들이 직접 잔디를 베고 잡초를 뽑아 정원을 손질하고 관리 하셨습니다.



옥상에 새로 생겼어요

1.탁구장



식사 후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식당 옆 벤치가 있던 공간에 탁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탁구 연습을 하던 직원들은, 이후에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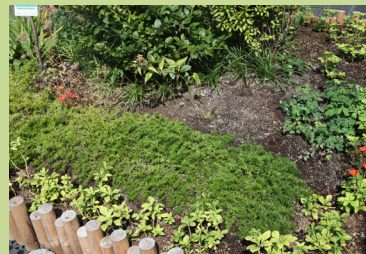
2.옥상 정원의 지킴이 - 현풍이 집



우여곡절 끝에 팩컴의 마스코트 현풍이의 집이 옥상에 마련되었습니다.

덕분에 현풍이는 군포 공장단지에 살면서도 매일 잔디와 흙을 밟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풍이가 쓴 x들은 정원의 나무와 잔디들에 거름이 되어 주어 옥상에 푸르름을 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3.옥상 정원 속 작은 텃밭



옥상 정원 한 편에는 작은 텃밭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곳에는 블루베리를 비롯해 호박, 오이, 고추, 여주, 상추, 토마토 등의 채소 외에도 작은 꽃과 다육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예쁘지만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채소를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돼요!

P 박미선



결혼 소식

결실의 계절 가을. 팩컴에서도 사랑의 결실로
백년가약을 맺은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그 현장을 전합니다!



2015년 9월 5일, 분당 베어캐슬에서 이운정 사원이 친구들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버진로드에 올랐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신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날 주례석에는 신부 아버지의 친구 분이 서주셨습니다. 이 친구 분은 현직 선생님이시기도 하셔서 그런지,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축가는 신랑의 친구 분이 해주셨는데요, 어찌나 노래를 잘하시던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축가 전문'으로 통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친한 친구가 진심을 담아 부른 축가는 사랑 가득한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학교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난 이 커플은,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신부는 4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뒤로 하고, 부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계기로 무엇보다 '자상한 신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품었습니다. 신랑은 연애할 때부터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정하고 가정적이어서, 새신부가 살림을 꾸려 가는데 힘든 점이 그다지 없다고 하네요.

이 알콩달콩한 신혼부부는 수원 영통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서로 함께할 남은 날들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2일, 구로에서 김수희 대리가 새신랑과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식당 내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이 한 쌍은 모두의 축복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은 주례 없이 담백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주례 말씀 대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평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혼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진심된 목소리로 낭독한 두 선언문은, 세상 그 어떤 주례보다 서로에게 의미 있겠지요. 이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객석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한명씩 일어나 신부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선물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신부조차 몰랐던 이 깜짝 이벤트로 더욱 특별한 예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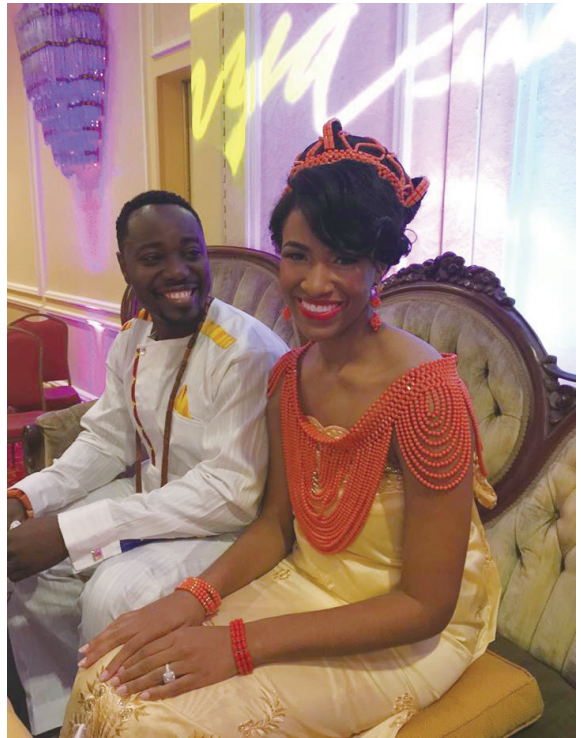
신랑 신부는 2014년 12월 중순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주선해준 소개팅이었는데, 신랑은 주선자 남편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모난 곳 없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느꼈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구로동에 새 터를 잡은 이 행복한 신혼부부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윤지은**



Our Wedding day



먼 미국에서도 Lawrence의 딸 Tonya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못했지만, Lawrence가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사장님에게 온 로렌스의 편지

Dear KS et al,

The long planned and awaited wedding was finally over this weekend.

We performed the African cultural engagement/wedding on Saturday evening and the Western wedding on Sunday.

Tonya's husband is from Nigeria so we blended my Ghanaian culture with the Nigerian culture.

It was a memorable celebration. The newlyweds left yesterday for their Honeymoon in Puerto Vallarta in Mexico.

The official photographs will take some time to be ready, but I wanted to share a few pictures with you that were taken by family members.

Thanks to all of you for your well wishes and encouraging messages.

I am trying to catch up on some rest and get back to full productivity later in the week. Enjoy the pictures.

Best regards

Lawrence

사장님에게 온 로렌스의 편지 (번역본)

김경수 사장님과 팩컴 직원들에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딸 Tonya의 결혼식이 이번 주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아프리카 전통 혼례를 올리고, 일요일에는 서양식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Tonya의 남편은 나이지리아 출신이라, 우리는 가나의 문화와 나이지리아 문화를 섞어 식을 진행했지요.

아주 기억에 남을만한 식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어제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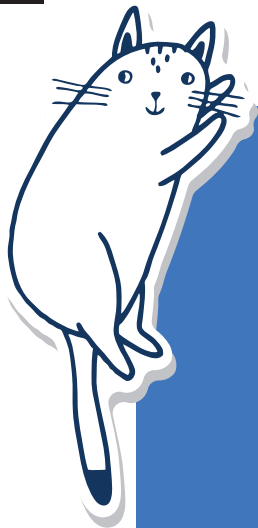
공식 결혼사진들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축복과 모든 축하메시지들에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좀 쉰 후에, 다음 주 중에 다시 힘내어 열심히 일해 보려 합니다.

사진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로렌스로부터



패밀리 난센스 퀴즈!

일하느라 힘드시죠? 일하시는 틈틈이 패밀리 사보를 통해
스트레스도 푸시고 재미도 얻으시라고 난센스 퀴즈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난센스 퀴즈의 효능

1. 나도 모르게 쉬는 시간마다 사보를 즐겨 찾게 되고 다음 호 사보가 기다려져 잠을 설친다.
2. 난센스 퀴즈를 풀면서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지만, 가족 및 친구 모임에서 패밀리 난센스 퀴즈 문제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3. 일하다가 정신 나간 사람마냥 혼자 키득키득대는 일이 잦아진다.
4. 자꾸 뇌가 똑똑해지고 색시해지는 느낌이 든다.
5. 엔돌핀이 온몸을 휘감아 치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 진다.



1. 송혜교, 송대관, 송윤아의 공통점은?

성동일

2.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

3.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는 사람은?

이미자

4. 소녀시대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시카

5. 축구선수 이청용과 기성용을 이어주는
사람은?

이을용

6. 눈과 구름을 자르는 칼은?

설운도

7.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

8.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이발소

9. 사람의 몸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철 들 때

10. 오이가 죽었다 묘비명은?

오이무침

11. 제빵왕 김탁구가 가장 싫어하는 유
머는?

빵터지는 유머

12.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쓰는 말은?

창피해

13.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시드니

14. 인도보다 네 배 더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

15.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16. 김치만두가 김치어머니한테?

내 안에 나왔습니다

17. 매일 새로운 육을 만드는 도시는?

뉴욕

18. 중고등학생이라는 차는?

중고차

19. 개미네 집 주소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20. 수학책을 난로 위에 놓으면 무가돌까?

수학익힘책

21. 콜라, 마요네즈, 케첩, 사이다, 소주,
맥주, 환타, 오렌지주스, 토마토 주스 그리
고 물을 섞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22. 엄마가 길을 잃으면?

맘마미아

23. 사자를 국으로 끓이면?

동물의 왕국

24. 못으로 푹 찌르면 터지는 나라는?

부탄

25. 컵라면 먹을 때 오는 역

온수역

26. 학생들이 좋아하는 역

방학역

27. 건망증 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역

이치산역

28. 기기만 하면 1월 1일이 되는 역

신정역

29. 폭력배가 즐비한 나라는?

찰레

30. 행복한 사람들만 모인 나라는?

방글라데시

봉평, 이효석의 고향을 가다

메밀꽃 필 무렵

허생원과 조선탄이 봉평 장으로 가기위해 걸어 갔을 그 길을 찾았다. 메밀꽃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봉평을 방문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 그 때문에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 길가에 주차를 하고 먼 길을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사방에 메밀꽃 천지라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허생원은 달빛아래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을 지나면서, 조선탄에게 몇 번이고 젊은 날 사랑 이야기를 들려 줬으리라! 허생원의 젊은 날, 경기가 좋을 때 두둑이 잡은 밀전을 노름판에서 다 잃고 절망할 때, 딱 한번 사랑한 사람, 성 서방네 딸! 달이 너무도 밝은 더운 늦 여름 밤,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으려 물레 방앗간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 개울가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 메밀꽃, 그 위로 내리는 달빛! 그 달빛을 받은 물레 방앗간안의 몸 사랑! 몽환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성 서방네는 파산한 터여서 처녀는 자신과 가족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보이고, 허생원은 이를 동정하며 처녀와 사랑을 맺는다. 다음날, 처녀는 빗쟁이를 피해 줄행랑을 놓는 가족과 함께 떠나고 말았다. 딱 하룻밤의 사랑으로 탄

생한 동이... 허 생원은 주막 충주집에서 처음 만난 어린 장돌뱅이 동이에게 “머리에 피도안 마른 주제에 계집하고 농탕질이냐!”며 따귀를 올리고 난 후 마음 불편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는 나귀 등에서 떨어져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어 준다. 허 생원은 그런 동이의 어머니의 고향 역시 봉평임을 알게되고 어둠속에서도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임을 눈 여겨 본다.....

현재 이 고장 사람들은 이효석 한 사람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으며,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봉평은 메밀꽃과 메밀 전병, 메밀 국수, 메밀 막걸리 등 토속적인 음식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우러져, 초가을이면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다른 모든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길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만개한 메밀꽃 사이를 걷노라면 어느새 허생원이 되고 동이가 되어서 소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력이 있는 곳이 바로 봉평이다. 다음 번에는 꼭 달이 뜬 밤중에 이곳을 걷고 싶다. 달빛을 머금은 하얀 메밀꽃들이 그 빛을 반사하면 한층더 소설속으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을것 같다. **P 황철원**



2002년 12월 31일

어느 추운 겨울날, 무작정 이삿짐을 싣고 어딘가 다녀오라는 말에 도착한 곳은 건물보다는 나무가 많은 작은 시골 동네에 삭막하게 자리잡은 빨간 벽돌집이었습니다.

‘서울서는 너무 먼 것 같아, 잠시만..... 잠깐만 머무르다 가야지.....’

하고 몸을 담은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안산 공장의 터줏대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제품들이 팩컴의 일인 것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팩컴에 와보니 그때 그 일들이 팩컴의 일이었고, 그 경험들이 진짜 팩컴에서 요긴하게 쓰일 줄이야..... 인연이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참 빠르죠?

그 동안 안산공장을 거쳐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한 언니들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구유순 과장이란 존재가 있을 수 않나 생각합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아! 저희 가족을 소개 할게요.

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굴곡진 현대사를 같이 겪어오신 저희 남편은, 대한민국의 멋진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엄마를 닮은 예쁜 딸은 올해부터 양평 어느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든든한 아들은 먼 훗날을 위해 도전 중이고요.

산을 좋아하는 저희 남편 덕분에 저희 부부는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틈을 내어 주말에는 산행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해외 산행도 병행 하면서요.

올해로 남편은 61번째 생신을 맞이 하셨는데, 축하를 위해 일가 40여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마울 뿐입니다. 모두 맡은 바에 충실하고 어떤 일에도 책임감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일가, 친지 모두가 한마음 일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내 남편에게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 사보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정은 제가 책임지겠노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탈하게 정년을 맞이 하신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팩컴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유순 과장이....

키 워 드 로 보 는 가 을
걷기만해도, 아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머리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이미지가 제일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나요?

<키워드로 보는 가을>을 통해 가을의 매력에 대해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추석: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연초의 구정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기다려지죠, '추석' 하면 드는 기분엔 대한 한 조사의 결과 역시 '즐거움' 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힘들다' 등이 그 뒤를 바로 잇고 있을 정도로 명절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데요, '팩컴 식구들은,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2.단풍: 가을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풍이죠! 가을이 오면 푸르던 산과 들이 수줍은 색색시 마냥 울긋불긋 새롭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단풍시기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평년에 비해 이틀 정도 빠를 전망이지만, 산 정상에서부터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는 평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래 날짜 참조하셔서 가족과 친구들과 단풍여행 가셔서 기분 전환 하시고 오시는 것도 좋겠죠.

3.독서: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책 제조하기에 바빠서 정작 독서할 시간은 부족한 팩컴 식구들, 식욕 당기는 계절이라고 내 몸만 건강히 살찌우지 마시고 우리의 귀한 영혼도 독서의 즐거움으로 살찌우시라고 가을에 읽기 좋은 책 추천해드립니다. 한 권 씩 꼭 챙겨보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가을 되세요!



미움 받을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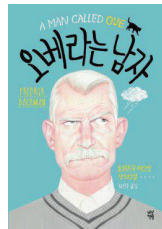
이 책 안에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학자 아들의 가르침이 담겨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 받을 용기까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

하신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용기들을 만나보세요! 여태껏 갖고 있던 당신의 가치관을 뒤집고 새로운 삶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밥을 먹고 무언가를 하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혼자 밥 먹는 문화가 퍼지고, 티비 프로에서도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를 다루기도 합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기 두려운 사람에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선물해 주는 책입니다.



오베라는 남자

스웨덴의 한 블로그를 전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만든 소설입니다.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소설, 오베라는 남자는 웬만하면 마주치기 싫은

까칠한 남자 오베를 주인공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 좋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소설, 강추합니다!

4.가을여행: 가을에 떠나기 좋은 국내 가을 여행지, 특히 가을 축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가을 바람을 느끼기 가장 좋은 곳, 담양 죽녹원
담양 죽녹원 인근에서는 현재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나무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기도 하고 대나무와 관련된 공예, 요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대나무 숲이 있는 담양에서 푸르른 대숲 속 자연을 한껏 느껴보세요.

-기간: 2015.09.17~10.31

-장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6-1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중 진주대첩에서 군사 신호이자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남강에

등불을 띄운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준 병사들을 기리며 이어져 내려온 이 축제는, 오랜 전통을 지닌 행사인 만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전통 축제의 모습을 한눈에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5.10.01~10.11

-장소: 진주 남강일원



순천만 갈대 축제

순천은 국내 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언제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는 순천만은 그 중에서도 가을 풍경이 가장 손꼽히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70만평의 갈대밭이 온통 금빛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넘실대는 가을 갈대 길 사이를 걸으며 더욱 아름다운 순천만을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간: 2015.11.06~11.08

-장소: 순천 도심권 일원, 순천 만정원, 순천마나 자연 생태공원

5.외로움, 고독: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외로움과 고독이죠.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울적해지기 보다는, 때로는 그 기분 그대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계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더 돌아보는 차분한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가을 시 한편과 함께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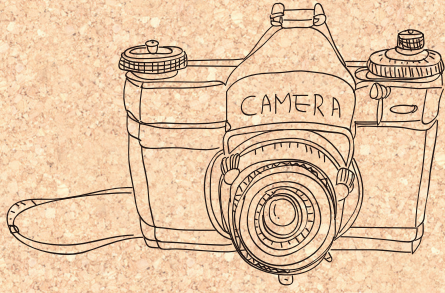
가을엽서 -안도현

한잎 두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줌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 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gopacom.com





PACOM NEWS

부서 이전



지난 여름휴가 기간을 전후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의 ON-LINE 체계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부서간 이전 및 사무실 통합작업이 있었다.

팩컴(AAP주)의 생산본부의 3개 부서(인쇄, 제본, 생산관리) 사무실을 2층으로 통합하여 부서간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고, 업무상의 신속한 소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OD부서와 PREPRESS부서도 2층으로 통합하여, 디지털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팩컴 탁구동호회 정기대회

지난 9월 4일, 가장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팩컴 탁구동호회에서 제2회 팩컴 탁구동호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시간이

끝난 저녁 6시부터, 의왕에 있는 한 실내 탁구장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선수들 모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선수들 모두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여, 주변 탁구 동호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정대성 과장이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그에 이어 박종천 대리가 2위, 윤영봉 대리 3위, 그리고 국종석 부장이 4위에 올랐다.



특성화고 미스매칭 현장 견학



지난 9월 16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중구청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특성화고 미스매칭 현장견학 1회차가 당사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성동굴로벌경영고등학교 2학년 중 디자인과 인쇄에 관심 있는 45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는데, Gutzeit이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인쇄의 과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동화된 CTP설비 및 인쇄 설비들이 있는 현장을 견학하며, 그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지난 10월 1일, 월례조회시간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단에는 바른노무법인 대표인 김진형 노무사가 섰는데, 최근 일어나는 실제 성희롱 사례를 예로 들며, 사내에서 쓰기에 부적절한 단어와 표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을 펼쳤다.



ICTI 공장심사 완료

지난 9월 11일에는 공장심사 중간점검이 있었다. 그 동안 여러 공장 audit 심사가 진행되었지만, lego 제품 생산을 위해 1년 중 1회 중간 수시점검을 받기로 했다. 이에 우리 회사도 9월에 불시 점검을 받았다.

이날 audit 심사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심사준비 덕분에, 단 한 개의 오류도 없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당사는 2016년도에도 lego 제품의 생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팩컴 자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우수공정 심사



팩컴그룹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거래처의 각종 공장심사대비 및 공장의 자체적 clean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1회씩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자체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9월과 10월에는 총 3회의 심사를

PACOM NEWS

실시하고, 가장 우수한 3개 공정팀에게는 금
번 팩컴 창립 16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
기로 하였다. 또한 이후 매년 누적된 점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공정팀에게 시상
하기로 하였다.



결혼을 축하 합니다



가을철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추석 명절 전
9월에 2명의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
9월 5일에는 분당 베어캐슬웨딩홀에서 창조
팀의 이운정 사원이 회사 입사 전부터 연애
를 해오던 대학 동료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출퇴근거리가 다른 직원에 비해 좀 멀긴 하
지만, 데이트 시간은 24시간이니 문제될 것
은 없을 것 같다.

9월 12일에는 구로 명품웨딩프로포즈에서
디자인팀 김수희 대리가 늦은 3시 30분에
웨딩 마차를 타고 식을 올렸다. 신부의 미모

덕분인지, 전국에서 올라온듯한 많은 신랑
친구들과의 사진촬영이 인상적이었다.



입사를 축하 합니다



지난 9월 1일,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인 특성화고 고3 취업프로젝트사업으로 서
울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 5명(장
정현, 김승언, 임석진, 심정호, 임성욱)이 우
리회사에 입사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쇄과
가 있는 학교와 협약이 되어 신입사원들의

활동이 기대가 되며, 이들은 현재 인쇄사업
본부에서 열심히 수습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안산 공장에서 종철기
기가 추가로 군포공장으로 이전되어, 나종
국 기장이 군포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9월 말일로 정년을 맞이한 물류팀
의 태동호과장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물
류팀에서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원성





www.wirecomb.com

[Excellent Binding Solution]

와이어콤(WireComb)

‘와이어콤’은 사무 및 문구용품 외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 및 제책에 사용되는 고품질 트윈링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 강력하고 안정감 있는 북 바인딩 효과
- ‘트윈링 엷지 클린칭 장치’ 사용으로 안전성 강화
- 무독성의 친환경적 재료 사용 (SGS 무독성 실험 통과)
-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함
- 다양한 컬러 및 사이즈 고객 주문 시 제작 가능
- 다이어리, 브로셔, 노트, 카렌더 및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에 적합



*Strong Binding, Easy & Safe,
Eco-friendly with High Quality*

‘트윈링 엷지 클린칭 장치’ 발명 특허 보유



와이어콤은 트윈링이 적용된 제본 제품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커팅된 트윈링 엷지(링 끝부분)를 구부리는 ‘트윈링 엷지 클린칭’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특허 출원번호 제 2010-0139793 호). 트윈링 엷지 클린칭 장치는 커팅하여 날카로워진 트윈링의 끝부분을 라운드 형식으로 구부려 마감 처리함으로써 해당 트윈링이 적용된 책자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성을 없애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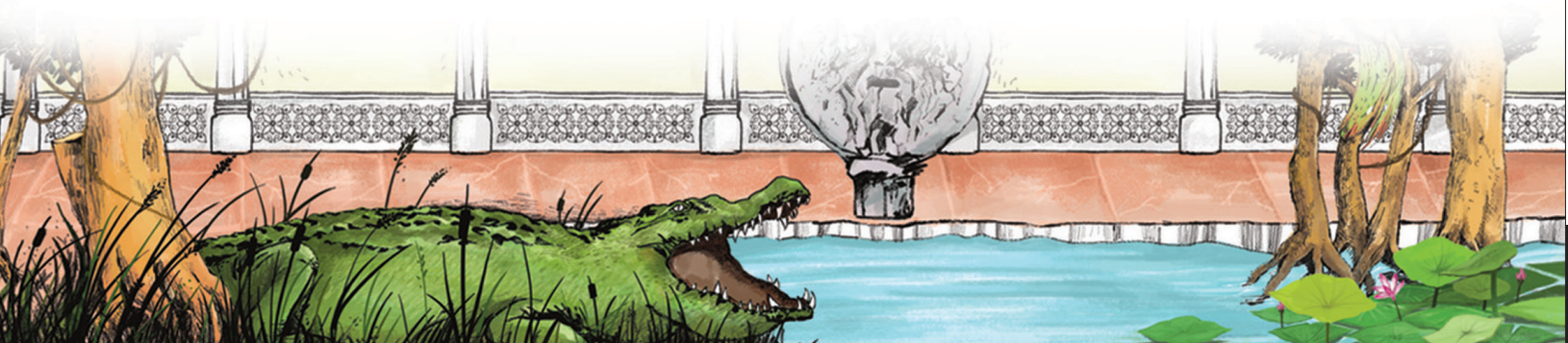
SGS 무독성 테스트 통과!

와이어콤은 소비자의 인체에 접촉되기 쉬운 트윈링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에 대해 직접 SGS 홍콩 지사에 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재료 성분에 들어있는 9가지 성분 항목에 걸쳐 시행된 무독성 여부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SGS는 1878년 설립되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300여개 지사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시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팩컴코리아(주) 트윈링 사업부 / 홈페이지 : www.wirecomb.com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5번지 팩컴코리아(주) 안산공장 內
전화 : 031)483-3666 / 팩스 : 031)483-5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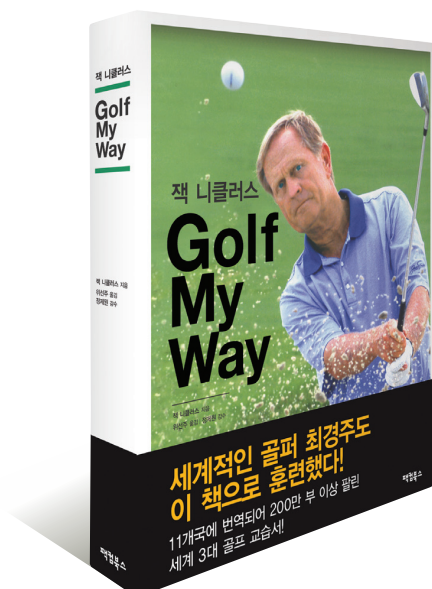


잭 니클러스 **Golf My Way**

**골프계의 살아 있는 신화,
잭 니클러스가 진솔하게 밝힌 골프 세계, 골프 인생!**

『잭 니클러스 Golf My Way』는 1974년 첫 출간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 3대 골프 교습서 중 하나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멘털 스포츠인 골프, 골프 게임에 영향을 주는 멘털 요소들에 대한 조언과 함께 골퍼들에게 도움이 될 기술 및 게임 접근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 토너먼트 골프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견해 및 철학을 담았다.

잭 니클러스, 켄 보딘 공저 | 위선주 역자 | 35,000원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make

휴가 때 여행 다녀 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칸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